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美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일 정상좌담회 개최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일, 한미일 첨단기술 분야 협력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1.17, 금) 오후 APEC 정상회의의 참석 계기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스탠포드 대학*을 방문해 한일, 한미일 간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행사는 스탠포드 대학 3개 연구소가 공동으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혁신 동맹국인 한일 양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에는 스탠포드 대학 관계자, 대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한일 양국 정상이 제3국에서 공동으로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비드 정상회의에서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 약속을 바탕으로 반도체, AI, 청정에너지 및 양자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어진 콘솔리자 라이스 후버연구소장(前 미 국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양 정상은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양자 기술,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서 양 정상은 스탠포드 대학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은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양자 기술 육성·활용 등에 있어 한미일 3국이 국제 협력을 선도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한 학생 및 연구자 간 교류도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번 행사에 앞서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혁신의 산실인 스탠포드 대학에서 현지에서 활동 중인 양국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통령

은 국경 없는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혁신의 주역인 양국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최된 이번 한일 정상 좌담회는 양 정상이 미국의 미래 세대와 첨단 산업과 혁신 기술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한미일 3국이 미래 성장 동력인 첨단 과학 기술 분야의 협력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다.

경기도 김동연지사, '제1회 경기도 상인의 날' 맞아 "지역경제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 성원하겠다"

2023 제1회 경기도 상인의 날,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SINTEX)에서 개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열린 '경기도 상인의 날' 행사에 참여해 도내 상인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고 지속적인 성원을 약속했다.

경기도는 15일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SINTEX)에서 '2023년 제1회 경기도 상인의 날' 행사를 열었다. 경기도 상인의 날 행사는 코로나19와 고물가 등으로 침체된 경제여건 아래 지역경제의 기반이자 뿌리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행사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상인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정동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 김원중 소상공인진흥공단 경기지역본부장과 경기도 31개 시군 전통시장 상인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동연 지사는 "중앙정부는 어려운 경제와 민생 속에서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를 대폭 늘리지 않고 지역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며 "지금과 같은 경제 어려움과 민생 속에서는 정부 재정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내년도 경기도 예산 증가율은 6.9%"라고 말했다.

시장별 단합과 개성을 표현하는 31개 시군 상인의 입장식으로 축제의 시작을 알렸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유공자에게 경기도지사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후 경기도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안전한 시장 ▲믿음을 주는 시장 ▲친절하고 청결한 시장이라는 3대 비전을 선포했다.

이어 "해가 거듭될수록 경기도 상인 여러분께서 상인의 날을 즐기고 행복하고 보람찬 날로, 또 도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상품을 값싸게, 인간미 넘치게 취급하고 마음을 표시하는 그런 날로 기억했으면 좋겠다"며 "경기도 지역경제와 대한민국경제를 위해서 애써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 성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후에는 전통시장 알기 OX퀴즈, 한 마을 체육대회 및 레크레이션, 상인 동아리 장기자랑, 축하공연 등 전통시장 상인을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범상/기자

경북도, 전국 최초 확장형 하이브리드(Web+App)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포트' 서비스 오픈

경북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 정식 서비스 오픈

경북도는 11월 20일 '경북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메타포트는 경상북도가 2022~2024년까지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메인 공간으로 구성하여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경북 메타버스 통합 플랫폼이다.

▲컨퍼런스홀은 대규모 인원 수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지역 기업들이 세미나와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전시홀에서는 각 기업의 특색있는 홍보관 개설이 가능하며, 영상의 사무실 등을 무료로 제공하여 지역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한다.

플랫폼으로, 사용자들의 메타버스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라며,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데 전략적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메타포트는 이용자들이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체계를 통해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메타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과 기업이 가진 신기술을 선보여 경북이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개발하게 됐다.

소핑몰에서는 롯데면세점 등 5개 면세점과 지역 고품질터 사이즈가 있어 면세품 쇼핑과 다양한 지역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전시홀에서는 각 기업의 특색있는 홍보관 개설이 가능하며, 영상의 사무실 등을 무료로 제공하여 지역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한다.

이처럼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의병유물 및 의병유적지 소개, 유물 기증 유도, 문화재 지정 건의 등 선양사업 기초자료 수집에 자문단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박물관 건립 이후에도 지속해서 운영, 시군 의병 관련 자문과 남도의병 선양사업의 의견수렴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메타포트는 전국 최초 확장형 하이브리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웹3.0 기술을 응용하고, 웹(Web)과 앱(App)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며 Open-API를 이용하여 무한한 확장성을 고려하여 만든 플랫폼이다.

경북도청에서는 도정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로비에서 E-Book, 영상갤러리와 사진갤러리를 통해 볼 수 있다. XR체험존으로 이동하면 체험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방문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에는 관광, 교육 서비스 기능 구축 등 이용자 접근성 향상과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심재명 전남도 문화자원과장은 "남도의병 선양자문단의 의병 유적지나 유물을 찾아내는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남도의병 선양사업 추진과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건립에 잘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메타포트가 제공하는 Open-API를 통해 로그인, 아바타 등 연동이 가능해져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이 보유한 메타버스 콘텐츠를 하나의 통합된 서비스처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시실에서는 멋쟁이 캐릭터와 함께 신라시대 와당을 활용한 퍼즐게임을 즐길 수 있다.

가상투어 기능을 통해 관광지를 안내하고, 학교·교육용 강의실 연계 기능을 구현하여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메타포트는 국내 최초 확장형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웹과 앱 방식을 모두 활용하여 개방성과 무한한 확장성을 고려해 개발한

메타포트 앱(App) 버전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받은 뒤 이용할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지사실로 이동하면 이철우 도지사와 함께 사진 촬영이 가능하며, 경북을 상징하는 날말퀴즈 게임도 즐길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메타포트는 국내 최초 확장형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웹과 앱 방식을 모두 활용하여 개방성과 무한한 확장성을 고려해 개발한



서울시 오세훈 시장, 국내 최대 실내경기장 고척 스카이돔에서 '2023 롤(LoL)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관람

오세훈 서울 시장은 19일 18시 '2023 리그 오브 레전드(LoL, 롤)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이 개최되는 고척 스카이돔을 찾아 경기를 관람하고 국내외 게임팬들을 만났다.



이날 시장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상현 라이엇게임즈 아시아태평양 총괄과 관람석에서 결승에 오른 국내 프로그래밍단 'T1'을 응원했다. 'T1'은 LoL의 전설 페이커가 속한 팀이다.

전날 사전행사인 '월즈 팬 페스트 2023'에 참가한 오 시장은 "e스포츠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장면이 될 것 같다"며 "엠티제부터는 착한 일을 한 번씩 하게 된다. 착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결승전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롤드컵 유치 이후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9월 15일 롤(LoL) 운영사 라이엇게임즈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고척스카이돔 대관은 물론 11월 16일부터 나흘간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월즈 팬 페스트 2023'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펼쳤다.

16일~19일에 열린 '월즈 팬페스트 2023'은 게임팬과 관광객들이 게임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세계 최대 e스포츠 행사인 '2023 롤드컵'은 2018년 이후 5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대회로, 10월 10일 서울 대회를 시작으로 부산에서 8강과 4강을 치르고 11월 19일 19시 현재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T1(대한민국)과 웨이보 게이밍(중국)이 맞붙는 결승전이 진행중이다.

최광수/기자

전남도, '남도의병 선양자문단' 유적 제보 성과

건의 유물 일부, 도 문화재 지정·국가문화재 승격 추진키로



전남도는 남도의병 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월 구성된 '남도의

병 선양자문단'의 다양한 활약과 제보가 이어져 일부는 사업에 반영키로 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의성' 부자의 의승병 요청 격문과 당시 사용한 도검은 도 문화재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전남도 유형문화재 제174호 '고흥 신군안 의병장 임명첩'은 국가문화재로 승격 지정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두 차례 '남도의병 선양자문단' 회의를 열어 도내 의병과 유물, 의병 유적지와 관련한 여러 의견을 청취했다. 접수 의견은 도와 전문가 검토를 거쳐 남도의병 선양사업 추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우수 제안은 남도의병역사박물관 전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강진과 해남 경계의 성산 '병치'에 위치한 '진터산성'은 현지 조사와 관련 문헌조사를 완료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진터산성'은 정유재란 당시 해남에서 넘어오는 왜군을 방어하기 위해 의병이 주둔했던 진지로 알려졌다.

박중배/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기획재정위 “행감 파행” 유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정호)이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입장문을 통해 “현재 기재위는 지난 7월 18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보임의 건을 볼모로 9월 임시회에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까지 파행하고 있으며 해당 안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협의와 의장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본회의 참석의원 약 95%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설명하며 “특히, 지미연 등 7인이 제기한 의회의결 취소 가처분 소송은 1, 2심 모두 지미연 의원 측이 패소하는 사법적 판단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위원장은 기재위에 보임된 위원 3명 중 민주당 1인은 감사위원으로, 국민의힘 2인은 감사위원에서 배제시키는 감사계획서 작성을 지시, 의결하는 야만스런 일을 저질렀다”면서 이렇게 지 위원장 개인의 몫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파행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중인 점은 경기도민 누구나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쓴 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그간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단은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부위원장님 상임위를 개최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회의 규칙까지 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작금의 사태에 암묵적 동조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거부하고 있

는 모습”이라면서 이 사태의 모든 원인은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이는 명백히 의회를 기망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만약,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지 못할 경우 민주당과 협의하여 윤리위원회 회부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확대 필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한원찬 부위원장(국민의힘, 수원6)은 17일 경기도교육청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동체의 사기진작을 위한 표창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현재 정부는 매년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표창을 하고 있지만 교육부에 할당된 정원을 다시 시·도교육청 별로 나누다 보니 대상 인원이 너무 적어 하늘에 별따기와 같은 상황이라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 교사, 공무원,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모범상을 포상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물었다.

이와 관련해 김재수 노사협력과장은 “교육공무직의 표창 및 부상 수여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하며, “교육공무직에 대한 모범상 표창은 17개 시.



도 단체협상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과 도교육청 교육공무직 대상 별도 추진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은 “선발 대상에서 교육공무직을 삭제하고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모범공무원상으로 직렬별 인원을 고려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원찬 부위원장은 “관계 당사들과 협의와 조율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히고, 도교육청을 향해 “노사협의회 미설치는 ‘근로자참여법’ 제4조 노사협의회 설치에 위반된다고” 질타하며, “노사협의회 설치를 통해 교육공무직도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김희철 의원, 민원대응팀과 이룸학교 재구조화 문제점 등 지적

5급이상 직원 중 1년간 공석인 특이 사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의에서 “민원대응팀 신설과 관련 학교 학생과의 직접적인 업무를 하고 있지 않는 행정실장이 포함돼 학생 관련 민원대응이 가능하냐”며 “현장의 우려를 외면하지 않기”를 주문했다.

또한 김의원은 지방공무원인사과에 대한 질의에서 “5급이상 직원 중 1년간 공석인 특이한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대외협력국에 대한 질의에서 “지역교육협의회에서 이룸학교 대한 회의를 진행 했는데 회의내용과 결과를 받아서 읽어 보았는지”에 대해 질책했다.

김의원은 “이룸학교에 공모했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며 “포기하는 이유를 이룸학교의 재구조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관련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의원은 “현장에서 공유학교라는 얘기가 나오면 학부모님들이 어디 학교 세우는 줄 알 만큼 공유학교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며 “좀더 원활한 사업의 진행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희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은 17일 교육행정위 상임위원회의실에서 열린 도교육청의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대외협력국에 대한 2023년 행정

사무감사에서 ▲민원대응팀 신설 관련 ▲5급이상 직원 공석 ▲이룸학교의 재구조화 및 공유학교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희철 의원은 운영지원과에 대한 질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지하철 역사 만들기 프로젝트 경기도, 안심역사(4S Station) 가이드라인 마련해 공사에 적용키로

경기도가 이용자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역사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 안심역사(4S Station)’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도에서 추진 중인 모든 지하철 공사에 적용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 안심역사(4S Station)’란 안전하고(Safe), 스스로 자각하며(Self awareness), 안정감을 주는(Stable) 지하철(Subway)로 역사를 말한다.

경기도 안심역사 가이드라인은 현재 한창 시공 중인 별내선부터 향후 설계 예정인 노선까지 경기도가 시행하는 모든 지하철에 적용된다. 안전한(Safe) 지하철 역사를 위해 사각지대인 CCTV를 설치하고, 비상벨, 화재 예방 시설 추가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자각심(Self awareness)은 이용자 누구나 역사 전체가 모니터링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역사 전체에 반사경, 역사 전체 송출 모니터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경각심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이용자에게 안정감(Stable)을 주기

위해서는 안심역사 특화 구역을 설치하고 조명(색온도)을 따뜻한 느낌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역사를 구성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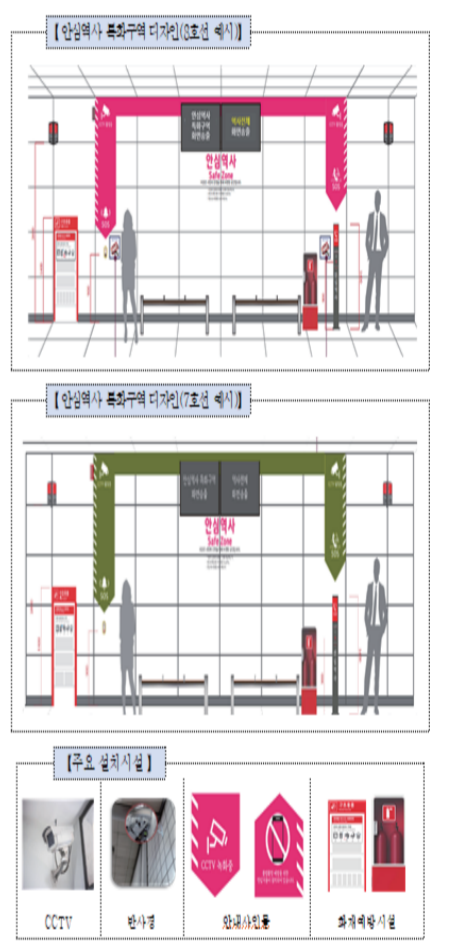
특히 위험을 느낀 도민이 각종 범죄 및 화재 등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심역사 특화 구역을 승강장에 설치했다. 안심역사 특화 구역에는 CCTV, 안심역사 특화 구역과 역사 전체가 송출되는 모니터, 비상전화, 비상벨 등이 설치된다.

이 밖에도 CCTV 녹화 중, 역무실 위치안내도, SOS 표시 등 안전과 각종 안내물을 설치하여 지하철 전체가 안전하다는 느낌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개통 임박한 별내선 이후 신규 개통 예정인 노선에 대해서는 지능형(AI) CCTV를 도입해 각종 상황에 신속대응할 예정이다.

고봉로 경기도 철도건설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역사를 구축해 교통의 편리함뿐 아니라 각종 범죄와 사회적 재난에도 선제적 대응을 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지하철을 건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평범한 마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동해안 청정해역! 안전한 우리 수산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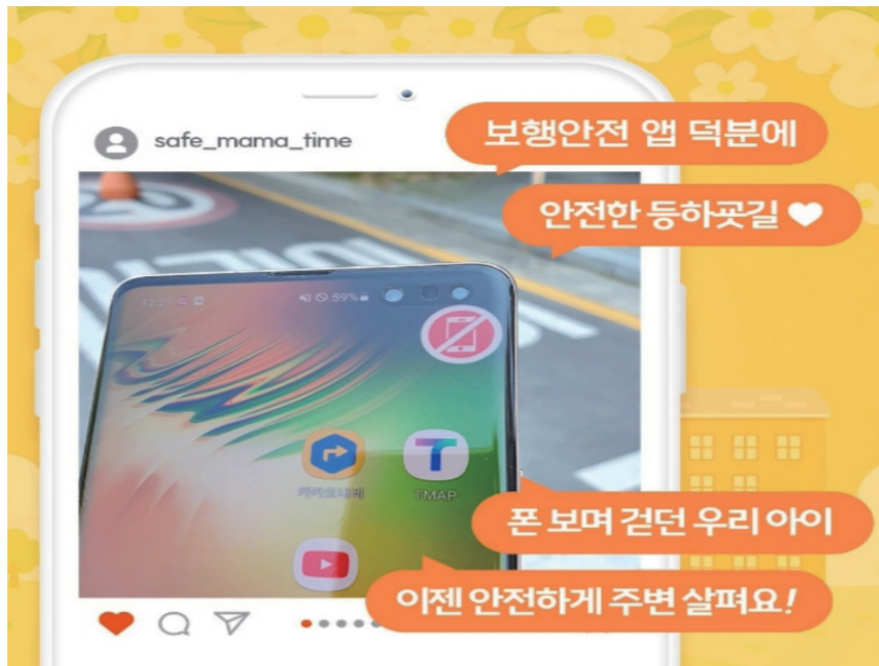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

수원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크론폰' 구축한다

어린이들이 스마트폰 보며 걷는 것 방지...시스템 구축된 어린이보호구역 들어서면 전화통화 제외한 모든 앱 사용 제한 돼

수원시가 9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크론폰'을 구축한다.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크론폰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블루투스 장치를 설치해 어린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다. 스마트폰에 보행안전 앱을 설치하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보행하는 중에는 모든 앱이 작동되지 않는다. 통화는 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주관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 발굴사업' 공모에 수원시의 'IoT(사물인터넷) 기반 어린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

스�크론폰 구축'이 선정돼 추진하는 것이다. 내년 6월까지 천천·호매실·고색·곡반·화홍·매현·매탄·효동·태장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비로 4억 1000만 원(전액 국비)을 투입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스마트폰을 보며 고개를 숙이고 걷는 어린이들이 많아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화성시, '100만 도시 화성 정책제안 공모' 개최

화성시가 '100만 도시 화성 정책제안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화성시 인구가 올 연말 1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100만 도시에 걸맞은 창의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함으로 20일부터 12월 9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공모 내용은 '100만 화성, 100만 가지 정책아이디어 - 100만 도시라면 _____ 했으면 좋겠다'를 주제로, ▲100만 도시를 대비해 바꿔야 할 정책제안 ▲100만 도시를 맞이해 보완해야 할 정책제안 ▲100만 도시와 함께 하는 신규 정책제안 등 100만 도시와 연관된 모든 아이디어다. 100만 도시 화성시정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를 시민주혜성, 창의성, 경제성, 지속성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00만 가지 정책 아이디어가 100만 화성시 미래에 주춧돌 역할을 할 것"이라며 "100만 도시 화성시의 시작에 함께할 수 있는 이번 공모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2024년 고양 재도약의 해... 5대 예산이 추진동력"

교통·경제·안전·복지 '넓히고' 도시기능 '살리는' 예산안으로 꾸릴 것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일 고양 시청 열린시장실에서 시청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5대 사업 분야 추진을 위한 2024년 본예산안 방향을 밝혔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교통·경제·안전·복지의 4대 영역을 '넓히고', 도시의 기능을 '살리는' 2024년 본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2024년은 '고양 재도약'의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해다. 내년 하반기 산자부 경제자유구역 최종 지정을 앞두고 있고 일산테크노밸리 사업도 본격화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예산은 이 모든 사업들의 추진 동력이다. 비록 세수와 교부세가 줄어든 열악한 긴축 상황이지만, 단순히 '아껴 쓰는' 것을 넘어 '제대로 쓰는' 건전재정을 실현하겠다"라며 "2006년 세계 10대 도시로 선정됐던 고양의 역동성을 다시 되찾기 위한 간절한 소망을 내년 예산안에 담고, 저도 바로 직접 뒤통자"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고양에 특화된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투자유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킨텍스 제3전시장 및 지적재산권(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 조성 추진과 더불어 내년 토지공급 예정인 일산테크노밸리 투자 유치를 본격화하고, 바이오·인공지능·항공우주 등 특화산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기술 경쟁 속 고양의 자원이 될 인재 양성을 위해 특목고와 국제학교 설립, 해외 대학캠퍼스 유치에도 주력한다. 교통 분야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교외선, 고양평생선, 인천 2호선 연장사업의 조기 개통을 추진해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앞당기고, 인구 130만 시대를 대비해 시내 교통 편의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합리적 복지체제와 과학적 안전체제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재난재해에 대비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기술을 통해 안전 체계를 과학적으로 확립할 예정이다. 도시의 기능도 되살린다. 최근 가속

도가 붙은 1기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시 차원에서 주민 맞춤형 재건축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컨설팅, 안전진단 등에 주력하고, 구도심의 재창조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또한 도시 전반의 에너지 시스템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 예산안은 시의회 제출 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아울러, 이동환 시장은 지난 4일부터 12일까지 경제자유구역과 바이오정밀의료협력단지(클러스터) 등에 들어설 해외 기업·기구·대학캠퍼스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12일간 중국·독일·룩셈부르크·런던 등지를 방문하고 이번 기자회견에서 종합성과를 발표했다. 그는 이번 방문의 의의를 '해외 네트워크 구축'으로 소개했다. 한영기/기자

이동환 시장은 "유수 기업들이 고양시로 모여들기 위해서는 인지도와 신뢰도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이는 꾸준한 노력이 누적되어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라며 "이번 방문 역시 고양을 알리고 신뢰를 쌓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며, 이번엔 만난 기구·기업들을 단지 일회성 방문에 그치지 않고 고양의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라는 소중한 자산으로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큰 가시적 성과를 2025년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 유치로 꼽았다. 세계지방정부연합은 국제연합에서 유일하게 인정받은 지방자치단체기구로 세계 24만여 개 도시가 소속되어 있다. 시는 총회 유치로 세계무대에서 고양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외에도 룩셈부르크 국립보원원과 룩셈부르크대, 독일 임상시험수탁기관인 '프리시전 포 메디슨', 뮌헨 바이오파크 등에서 한국 투자에 대한 긍정적 의향을 확인했다. 또한 방문 과정에서 인천공항과의 높은 접근성, 국내 최대 국제전시장 보유, 의료인프라 등 고양의 강점을 자연스럽게 알리는 비가시적 성과도 있었다는 평가다. 한편, 경제자유구역은 고양시의 역점 추진사업으로, 지난해 11월 경기 북부에서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되며 1차 관문을 넘었다. 시는 내년 산업통상자원부 최종 심사를 위해 선진지 벤치마킹과 더불어 현재 경기도, 산업연구원과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영기/기자

안양시, 연말까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올해 1~10월 140억원 징수...목표액 108% 달성

안양시는 내년도로 이월되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2023년 마무리 지방세·세외수입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6일부터 17일까지 자진납부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안내문 일괄 발송, 납부 홍보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했다. 아울러 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6주 동안 집중 징수활동에 들어간다. 집중 징수활동 기간에는 현장 출장을 강화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 및 사업장 수색을 실시하고, 부동산·차량·금융자산 등에 대한 압류와 명단공개·출급금지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편의 제공과 체납액 징수 유예·영치 유예 등 지원을 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징수목표액(129억원)을 초과 달성했다. 이 기간 동안 지방세 101억원(목표액 93억원), 세외수입 39억원(목표액 36억원) 등 징수목표액의 108%인 140억원을 징수했다. 세입이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가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한 결과, 징수액이 전년 동기 대비 15억원 늘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해서는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유예, 분할 납부를 유도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성실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우용/기자



안산시, 드림스타트 아동·양육자 대상 '신나는 우리가족 쿠킹 클래스' 운영

안산시는 드림스타트 아동 및 양육자 68명을 대상으로 '신나는 우리가족 쿠킹 클래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소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 디저트 쿠킹 클래스 체험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 강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오는 22일부터 4주간 주 2회 1팀씩 소규모(8인~10인) 그룹으로 구성해 제과제빵학원에서 아동과 양육자가 함께 휘낭시에와 파운드 케이크 등을 만드는 쿠킹 클래스로 진행된다. 박현석 아동권리과장은 "이번 프

로그래를 통해 아동과 양육자가 맛있는 빵을 만들어 서로 친밀감을 높이고, 오랫동안 추억에 남을 즐거운 체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육자와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욕구를 파악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드림스타트는 2009년부터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만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 및 보건, 복지, 교육(보육)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정부/기자



2023 성남 바이오헬스케어 국제 컨벤션(SBIC 2023) 개최

성남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전진기로서의 힘찬 첫 발을 내딛다



성남시가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3 성남 바이오헬스케어 국제 컨벤션(SBIC 2023)'을 개최한다. K-바이오 산업의 가파른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남시는 1,700여 개의 병원과 2만 여 명의 의료인력 및 930여개의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이 밀집해 전국 최고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성남의 바이오헬스 우수기술과 기업을 전격적으로 알리기 위해 산·학·연·병·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난 2018년도부터 바이오헬스케어 컨벤션을 꾸준히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 개최되는 '2023 성남 바이오헬스케어 국제 컨벤션'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주관하는 '대한의료정보학회 추계학술세미나'와 '대한디지털치의학회, 한국체외진단의료기학회, 대한미용의학회' 등이 주관하는 각종 국제 세미나 및 네트워킹 행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의료기기, 제약, 바

이오 관련 유망 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으로,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성남산업진흥원은 관내 우수기업을 모집하여 전시 부스, 바이어 발굴·매칭, 통역 등을 지원하며 세계 각지 약 20개국 50여명의 해외바이어와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2023 성남 바이오헬스케어 국제 컨벤션'은 성남 유망기업들과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비롯한 바이오헬스케어(의료정보) 분야 전문 의료기관(의료진)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성남시에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성남바이오헬스 혁신 클러스터 구축'의 시작을 알리고 미리 비전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첨단시스템 반도체 특화신도시' 처인구에 조성되면 동서 균형발전기대

“용인특례시는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큰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올해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유치와 이에 따른 처인구 이동을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등의 빅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각종 대형 프로젝트가 쏟아질 것으로 새마을지도자 여러분들께서 용인이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나도록 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난 17일 처인구 마평동 새마을회관에서 열린 '새마을 열린대학 수료식'에 참석해 새마을지도자 수강생들을 격려하고, '스토리가 있는 그림과 건축의 세계'라는 주제로 인문학 특강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피카소와 레오나르도 다빈치 등 예술가들이 창작한 여러 미술 작품을 사례로 제시하고, 관찰력과 상상력, 창의적 모방 등이 변화와 혁신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15세기 북유럽 화가 '안반 에이크'의 '세례 요한과 성모자 성상화'를 소개하면서 '이것이 조각 같다, 그림 같으나'라는 물음을 던지며 특강을 시작했다. 수강생들은 "조각 같다"고 대답했으나 이 시장은 그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룡사 벽에 '노송(老松)'을 그렸더니 새들이 진짜 소나무인 줄 알고 앉으려다 벽에 부딪혀 떨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신라의 '술거'처럼 서양에서도 사물을 사진을 찍듯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그림이 한때는 인정받았는데 이런 그림들을 프랑스어로 '트롬프뢰유(trompe-l'oeil, 실제의 것으로 착각하게 하는 눈속임 그림)'라고 부른다"며 "그러나 시대가 바뀌면서 과거의 통념을 깨고 상상력 발휘를 통해 새로운 예술 세계를 여는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이제는 트롬프뢰유와는 전혀 다른 '비구상' 작품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안반 에이크'의 작품들과 함께 '아드리엔 반 더르 베르프'의 '꽃바구니와 커튼', '바렌트 반 데르 메르'의 '와인잔' 등 트롬프뢰유 작품들을 더 보여주며 난 뒤 인상주의에 대한 이야기로 화제를 바꿨다.

이 시장은 '클로드 모네'의 '인상: 해돋이'를 보여주며 인상주의란 말은 이 작품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그림을 본 사람들은 "이건 그리다 그만둔 것 아니냐?"는 식으로 폄하했지만, 인상주의 화가들은 사물이 빛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그 순간이나 모습을 캔버스에 담았는데 이 역시 새로운 시도여서 하나의 미술사조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모네가 연작으로 그린 '수련' 가운데 하나는 지난 2008년에

8040만달러(한화 약 1046억원)로 경매에서 낙찰될 정도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국내엔 작고한 삼성의 이견희 회장이 모네의 '수련'을 소장했다가 기증했는데 이런 작품이 한국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클로드 모네'가 그린 '건초더미' 연작을 설명하면서 추상미술의 대가 '바실리 칸딘스키'가 이 그림을 보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사연도 소개했다.

이 시장은 "칸딘스키도 처음에는 현실 세계의 사물을 그리는 구상적인 작품을 그렸지만, 계속 고민하고 상상하면서 독창적인 추상 세계를 열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그림을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많은 작품을 남겼다"며 "색채는 건반, 눈은 화음, 영혼은 현이 있는 피아노"라는 '칸딘스키'의 말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어떤 예술작품에 황홀경을 느껴 사람이 현기증을 느끼거나 심한 경우 기절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를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의 작가 '스탕달'이 1817년 이탈리아 피렌체 산타크로체성당에서 이같은 경험을 하고 글로 남긴데서 비롯된 말이라며 '스탕달 신드롬'이란 제목의 영화도 소개했다.

이상일 시장은 "영화에서 주인공은 '피터 브뤼겔'의 '이카루스의 추락'이 있는 풍경'을 보여 실신한다"며 이 작품을 보여줬다.

이 시장은 네덜란드 황금시대를 대표하는 화가인 '렘브란트 반 레인'의 '유대인의 신부'를 소개하면서 '빈센트 반 고흐'가 이 작품을 2주일 동안 더 보게 해 준다면 수명에서 10년을 바칠 수 있다고 했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이와 함께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보여주면서 1974년 일본 도쿄에서 전시됐을 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들어 한 사람에게 9초만 보도록 했다는 에피소드도 소개했다. 다빈치 작품으로 판정된 '살바토르 문디(구세주)'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값인 4억 5030만 달러(현재 환율로 약 6000억원)에 사우디아라비아 빈살만 왕세자에게 팔린 이야기, '모나리자' 보다 약 10여년 전에 다빈치가 그린 것으로 알려진 '아일위스 모나리자'의 스토리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모나리자'를 독창적으로 재해석한 '마르셀 뒤샹'과 '페르난도 보테로'의 작품 등을 설명하면서 "모방해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면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파블로 피카소는 '쓰레기도 예술품의 재료가 될 수 있다'면



서 버려진 자전거의 핸들과 안장만으로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만들어 자신의 말을 증명해 보인 관찰력과 상상력의 대가"라며 "시의 행정을 하면서 관찰과 상상을 통한 시민체감형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은 쇠라하는 공업도시 빌바오를 관광과 문화의 도시로 바꾼 세계적인 건축물이다. 빌바오의 인구는 34만명에 불과하지만, 이 미술관을 보기 위해 연간 100만명이 넘는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이 시장은 "한 도시의 랜드마크 건물이 지역을 살린다는 뜻의 '빌바오 효과'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구겐하임 빌바오 미술관'은 대성공작"이라며 "이 건축물을 지을 때 '쓸데없이 큰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반대 의견이 많았지만, 빌바오 시가 멀리 내다보고 독심 있게 건축을 추진한 결과 완공 3년만에 건축비 이상의 수익을 거두고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월드트디즈니 콘서트홀', 후주의 '시드니 공대 경영대학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루이비통 건물', 프랑스 파리의 '루이비통 미술관' 등을 보여주며 "상상력과 창조성이 돋보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동음에 228만 m²(69만평)에 1만 6000호의 '하이테크 반도체 신도시'가 조성된다는 최근의 소식과 관련해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이동음 반도체 특화 신도시가 조성되면 용인의 오랜 문제였던 동·서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이고, 용인의 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이므로 시가 해야 할 일이 많

이천시, 관광자원개발사업 도비확보 및 관광콘텐츠 재정비 추진

이천시는 '매력 있고 품격 있는 문화 관광 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과 안전하고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을 추진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수립된 '이천시 관광개발 및 관광 활성화 추진 계획'의 3대 핵심 전략 중의 하나인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3S'(3S: Safe & Satisfying → Stay in Icheon) 관광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이천 고유의 랜드마크 개발과 관광콘텐츠를 재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이천시 걷기 좋은 길 활성화 ▲자연친화 관광환경을 위한 성호호수 일주도로 녹지공간 조성 ▲설봉공원 명품 야간경관 조성사업 ▲미래 관광자원 유치를 위한 관광단지 인허가 적극 지원을 골자로 하여 이천시만의 고유한 랜드마크 개발과 관광콘텐츠 재정비를 추진중이다.

특히 이천시는 숲길, 마을안길, 하천길, 제방길 등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도심순환형 걷기 좋은길(둘레길) 노선 개발 및 확장'과 도심형둘레길을 아우르는 길 명칭으로 이천의 둘레길을 걸으며 이천시를 알아가자라는 의미의 '이천알음길'로 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음면동 둘레길 선택과 집중 활성화 전략'으로 마장면 매화둘레길 정비에 의하여 2024년도 경기도 관광개발사업 신청 결과 도비 지원금 2억을 확보했으며 연말에 전체 예산이 결정되는 경우 해당 구간에 종합안내판 및 방향 안내판, 분사인 및 쉼터 조성 등 매화둘레길 구간을 정비하여 마장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성할 예정이며, 지역을 대표하는 둘레길로 가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시 관내 지역에 설치해 놓은 관광안내 표지판을 일제 조사했으며 덕평수목원, 노성산 입구 관광종합안내도 20개소 정비사업으로 경기도 보조금을 신청했는 바, 2024년도 종합관광안내도 개보수 사업 대상 시군으로 선정되어 36백만원의 예산으로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범상/기자



국내 최초 해양치유센터

해양치유 1번지 치유·심·완·도

해양치유로 몸과 마음을 힐링하세요

2023년 11월 24일

GRAND OPEN

의정부시,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 실시



의정부시는 11월 17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학대 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을 실시했다.

의정부역에서 진행된 캠페인에는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의정부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기관들이 참여해 예방 홍보활동을 실

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긍정양육 129 원칙에 대한 리플릿을 배부하며 시민들에게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올바른 자녀 양육법을 안내했다.

또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한 OX퀴즈를 통해 아동학대 관련 사안에 관심

을 갖도록 했다. 김지원 아동돌봄과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이 꼭 필요하다"며,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모든 아동이 보호받고 존중받는 '아이가 행복한 도시 의정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전북도, 온가족이 함께하는 아동학대예방 페스티벌 개최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에 복지부장관, 도지사 표창 등 19명 수여



전북도는 제17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18일 전북도청에서 온가족이 함께하는 기념식과 아동권리체험전을 개최했다.

아동학대예방의 날은 지난 2000년 11월 19일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된 이후 매년 아동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기념식은 18일 오전 11시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아동 및 가족, 시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교육청,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기념식에 이어 12시부터는 도청 다

목적광장에서 '아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페스티벌(아가페)'행사가 펼쳐져 온가족이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선보였다.

놀이를 통해 아동권리를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발달권과 참여권, 생존권, 보호권 등 4개의 테마로 구성된

체험부스가 운영됐으며 ▲공예체험 등의 놀이부스 ▲현대자동차와 함께하는 아동권리 체험버스 ▲아동범죄 예방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옹호캠페인 등의 프로그램에 1,000여명이 아동과 가족이 함께 즐겼다.

특히, 전북자치경찰위원회와 전라북도경찰청의 협조로 경찰체험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청소년 경찰학교 부스' 체험존에서는 아동학대예방상담, 지문사건등록, 경찰복 및 장비를 직접 체험하여 인기를 끌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가족단위 참석자들은 자녀들과 함께 체험전에 참여하면서 아동권리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만끽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라북도가 올해 보건복지부 아동정책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행복한 전북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보성군,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 행사 성료

위대한 헌신, 영월히 가슴에

보성군은 지난 15일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제17회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상이군경회보성군지회 주관으로 보훈 관련 9개 단체 및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을 위한 격려와 화합을 위해 마련됐으며 식전 공연 및 위안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다.

특히, 보성고등학교 학생회장 김규현과 부회장 김혜연 학생이 보훈 가족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은 편지를 낭독해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선열들을 기리

는 시간을 가졌다.

상이군경회보성군지회 손태은 지회장은 "이번에 마련된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행사가 보훈단체 회원간 화합과 교류는 물론 보훈가족들의 소중한 만남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국가보훈가족의 고귀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며 "송고한 정신을 기리고 받들면서 지원과 예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원영/기자



완도해양경찰서 전남 완도해역, 선박 전복 사고 발생

운항 중 무인도(오도)와 선박 충돌, 승선원 13명 전원 안전상태 확보

완도해양경찰서는 오늘 20일 오전 03시 54분 무렵 완도VTS는 전남 완도 어룡도 인근 해상에서 A호(5000톤급, 모래운반선, 13명)가 운항 중 섬에 충돌한 사항을 인지, 상황실에 신고 접수하여 긴급 출동했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선박 A호는 모래운반 차 진해로 이동 중 어룡도 인근 섬(무인도)에 충돌했다는 신고 접수와 동시에 경비함정 9척, 파출소 연안구조정, 구조대를 현장에 급파, 인근서 목포·여수 방재정 총 4척, 서특대, 여수항공대와 공동 현장 대응 중이다.

해경은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하며 승선원 13명(내국인 10명, 인도네시아

3명) 전원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급속하게 기울어 전복된 선박 주변 해상으로 기름 유출 대비 방제대책부부를 가동, 전 직원 비상소집하는 등 현장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당시 전복 선박에는 유류가 다수 적재되어 있어 파공부위 봉쇄작업을 위해 서특단, 완도구조대 동원 선저 파공 확인 및 해양오염 대비 오일펜스 설치 등 2차 피해 예방 중이다.

완도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대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해양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 중이다.

양영율/기자



구례군, 중대재해 예방 하반기 점검 추진

전남 구례군은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반기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에 따른 이행,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등 업무평가, 종사자 의견 청취,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 사항 등이다.

이행 실태 점검은 실무자 교육, 부서별 자체 점검, 전담 부서인 안전교통과 중대재해예방팀 순회 점검 순으로 진행된다.

구례군은 하반기 점검을 위하여 지난 16일 중대재해 대비 의무이행 사항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구례군 중대재해 예방 전담 부서인 안전교통과 중대재해예방팀이 주관했으며, 전 부서에서 실무자 80여 명이 참석해 사고 발생 시 적용받는 처벌 규정, 최근 중대재해 판결 사례 등을 교육받았다.

김순호 군수는 "안전은 우리의 가장 큰 가치이며 최우선 과제"라며,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진도군, 미국 시장에 농수산물식품 500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 체결

진도의 우수한 농수산물, 미국 수출 포문 열어

진도군이 미국 시장으로 16일(한국 시간 17일), 미국 현지에서 한남체인, 키트레이딩과 진도 농수산물 5백만 달러(한화 약 65억원)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희수 진도군수와 박남규 농수산물통사업단장으로 구성된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 개척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진도산 쌀, 미역, 김, 꽃게, 울금 가공식품 등을 미국에 첫 선을 보이게 됐다.

진도군의 이번 협약은 미국 수출의 첫 포문을 열었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아울러 진도군은 이번 협약과 더불어

로스앤젤레스(LA) 한남체인, 샌프란시스코 메가마트 등 3개 매장에서 진도군 농수산물의 홍보와 판촉을 위한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행사기간 중 현지를 방문한 진도군 농수산물 수출 개척단 관계자는 "이번 판촉행사와 협약을 계기로 진도 농수산물의 해외 시장 개척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세계적인 한국음식(K-food) 유행에 발맞춰 진도군 농수산물이 한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의 사랑을 받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진/기자



신안군 반세기 만에 문 연 책방, 군민 인기 폭발

김미승 작가와 함께 저자 초청 강연회 개최



신안군에서 지난 10월 31일, 50년 만에 처음으로 문을 연 '1004 책방'이 군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1004 책방은 군민들에게 최신 도서를 포함한 새 책을 한 달에 최대 3권까지(4인 가족 기준 최대 12권)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으며, 개장 10일 만에 700권 이상 책을 대여했고, 등록한 회원 수도 300명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1004 책방은 주민들이 읽고 싶은 책을 신청하면 이용자 편의를 위해 책 도착 알림 문자 서비스도 제공한다.

오는 11월 21일 1004 책방에서는 중견 작가 김미승 씨를 초청하여 저자 초청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 작가는 시 부문으로 등단한 이후 총 13권의 저서를 출판했으며, 그중 '꿈

을 파는 달빛 제과점'은 2023년 전남도립도서관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1004 책방 운영자 엄경자 대표는 "은빛 독서클럽, 동아리 모임과 전통 채색화 민화, 가야금 등 다양한 문화 강좌를 운영할 계획이다"라며, "이러한 활동으로 지역 공동체 중심의 평생교육 서비스 확대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군 가족센터와 1004 책방이 가족이 함께 찾는 학습 및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1004 책방은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학습의 장을 제공하여 지역 사회의 문화적, 교육적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목포시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 특별기획 '청년예술가' 전시 개최

목포시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이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연말연시 특별기획 청년예술가 발굴 및 지원 기획 '목포 현대미술, 확장 and 진화의 동력-청년예술가' 전(展)을 개최한다.

노적봉예술공원미술관은 목포미술의 가치와 가능성을 정립하고자 지역작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수집, 조사, 연구를 통한 다양한 기획전시를 개최해 수많은 목포 지역 작가 소개 및 홍보와 함께 정체성 확립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번 전시 또한 예향목포 미술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예술가 발굴 및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목포의 지역으로서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며, 대내외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11인의 청년작가들의 독창적이고 실험정신이 담긴 차별화된 작품들로 구성했다.

글과 그림은 같은 뿌리라는 '서화동원(書畵同源)'을 목표로, 새로운 문자추상 세계를 구축해가는 김미덕, 장치 위에 혼합재료들을 덧붙여 자연이라는 주제를 반추상과 추상의 이미지로 표현한 임동화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또한, '작가는 입으로 말하지 않고 작품으로 말한다'며 전통 서각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나무의 결에 글과 그림으로 새겨며 전통 예술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소은 김도경과 청목 장성훈 작가의 작품은 물론, 회화와 세라믹 물체의 융합으로 금빛 공간을 연출하는 신지현, 자연의 조화를 꽃과 나비로 표현한 최진옥, 꿈꾸는 이상을 향한 그리움과 아쉬움을 담은 박지현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정환희 작가의 어머니 사랑을 다양한 주제로 이미지화한 작품은 물론,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새들을 주제로 새로운 자아 발견의 설렘과 자유를 찾는 김성민, 경험과 체험을 통한 불합리한 사회문제를 풍자해 표현한 김민우, 여승주 청년 작가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박종배/기자



경북도, 인구감소 대응 정책 수립도 빅데이터 기반으로!

전국 최초 광역-기초 공동 업무 활용 플랫폼 'GBinPLUS+' 1단계 구축 완료

경북도는 11월 20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 이주화 LX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수행사, 자문단,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감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인구·산업 통합플랫폼 'GBinPLUS+' 1단계 구축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GBinPLUS+'는 지난해 8월부터 경북도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간정보 기반의 전국 최초 광역-기초 공동 업무 활용 플랫폼으로, 도와 시군은 인구감소 지역 추적 관리와 원인 분석을 실시간으로 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의 주요 기능으로는 ① 통계 시각화 ② 데이터 분석 지원 ③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 ④ 정책 평가 지원 ⑤ 대민포털(우리마을자원 둘러보기) 등이 있다.

통계 시각화 서비스는 인구통계, 전입·전출, 경북 특화통계, 산업통계, 인구감소지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각종 인사 이트를 도출할 수 있다.

데이터 분석 지원 서비스는 지도 기



반 분야별 공공데이터를 다양한 통계 분석 기능을 통해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사회적 요인 분석이 가능하다.

유동인구 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통신사 및 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북(시군 포함)의 시간대별 인구이동 및 소비패턴을 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 수립이 가능하다.

정책 평가 지원 서비스는 정책 시행 지역의 결과 평가를 위한 지표 선정 및 데이터 비교 분석을 통해 각종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할 수 있다.

대민 포털 '우리마을자원 둘러보기'는 아동복지시설 등 마을자원 데이터 및 정책 안내에 대해 차트와 지도를 활용하여 대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GBinPLUS+'는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운영할 계획이며, 2024년에 시행할 2단계 사업에서는 생활·투자·공간 입지 분석, 청년 취·창업 정보 등을 신규 서비스로 개발하고, 기존에 제공하던 공공데이터 범위를 확대해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버스과학국장은 "'GBinPLUS+'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원인 분석을 통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고, 도와 시군이 함께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실현하여 지방시대의 주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2023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 성황리 폐막

관람객 3만 3천여 명 방문, 수출상당액 1억 불 달성

지난 14일부터 4일간 개최된 '2023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이 17일까지 12개국 311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역대 최대 관람객 3만 3천여 명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폐막했다.

이번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은 역대 최대 면적, 부스에 다양한 첨단 기계·부품, 산업용·서비스 로봇 제품전시와 비즈니스 포럼 등 부대행사를 진행했고, 해외 참가기업도 2배로 증가('22년 12개국 37개사 → '23년 12개국 62개사)해 참가업체와 관람객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국제자동화기전에 부스를 마련한 삼익THK는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은 대구를 넘어 국내를 대표하는 전시회"라며, "매회 참가해 좋은 성과를 얻고 있지만, 특히 올해는 전회 대비 관람객 증가가 눈으로 체감되며, 자사 부스에 체류하는 시간도 길어진 것 같아 더욱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처음으로 대구국제로봇산업전에 부스를 마련한 에바(EVAR)는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CES 2023 혁신상의 주인공 자율주행 충전로봇 '파키'를 대한민국 로봇의 메카인 대구광역시에서 소개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참가 소감을 밝혔다.

또한, STS로보테크의 치킨, 김밥 등을 만드는 로봇 F&B, 베어로보틱스의 국내 최대 적재용량의 서빙로봇과 다층 건물 배송로봇, 도구공간의 자율주행 순찰로봇, 모던텍의 무인로봇 충전시스템 등 다양한 서비스 로봇이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소부장 특별관'에서는 지역 강소기업 9개사가 참가해 경쟁력 있는 소재·부품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파이프 머신을 생산하는 (주)공성은 해외 바이어가 직접 공장을 방문하고 구매상담을 진행했으며, 삼성중공업, 현대제철 등 국내 대거

업과도 구매상담을 진행하는 등 참여업체들의 만족도가 높아 내년에는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HD현대로보틱스, 삼익 THK, 대성하이텍, 대구텍, 한국OSG, 한국엠슨, 씨모아이, 정보로보틱스, 아이엠로보틱스 등이 참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밝혔다.

프랑스, 일본, 인도, 중국, 싱가포르 등 8개국 바이어 27개 사와 참가업체 54개 사가 직접 만나 해외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상담을 진행해 상담액 10,978만 달러를 달성했으며, 대기업 및 중견기업 30개사 구매담당자와 39개 참가업체 간 구매 상담을 진행해 상담액은 865억 원, 계약 추진액은 28억 원의 성과를 달성했다.

스마트장비(네트런, 서보프레스, 로봇 등)를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톨전기계 '플렉스컴퍼니'는 인도 제조사와 415만 불의 투자유치 상담을, 산업용 단열테크 제조기업인 '한비론'은 파키스탄과 85만 불의 투자유치 상담을 진행해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고, 정보로보틱스, 지오로봇 등도 해외 기업들과의 투자 성과를 거뒀다.

동시 개최행사로 진행된 2023 대구글로벌 로봇 비즈니스 포럼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15개국 18개 클러스터가 참여하고, 현장 참가 218명과 온라인 참가 968명으로 총 1,186명이 참석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기계·부품소재·로봇 산업의 확장성과 성장동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대구국제기계산업대전이 글로벌 최신품 기술 제품전시와 함께 기업의 비즈니스 교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2023 부산 마이스 페스티벌' 개최

11.30.~12.1. 벅스코 제2전시장에서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부산시는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양일간 벅스코 제2전시장에서 '2023 부산 마이스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12회를 맞이하는 '부산 마이스 페스티벌'은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주)벅스코, (재)부산경제진흥원, (사)부산관광마이스진흥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행사다.

이 행사는 마이스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대학, 일반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부산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구성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구심점이 되어왔다.

올해 행사는 ▲명사특강 ▲BMA 정례회 ▲마이스 포럼 ▲대학생 교육 ▲세민 아카데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명사 초청특강은 '마이스(MICE) 산업에 주목할 2024 트렌드 파악 및 전략 수립'이란 주제로 2024 트렌드코리아 공저자인 이준영 교수가 2024

대한민국 소비트렌드 전망과 마이스산업 시사점을 강연할 예정이다.

BMA정례회의는 부산 마이스 얼라이언스 회원사 및 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참가자 팀빌딩 프로그램, (사)한국PCO협회와의 간담회 자리를 신설해 지속 가능한 부산 마이스 산업을 위한 협력과 토론의 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마이스 포럼에서는 마이스 기관, 업계, 학계 관계자 약 70명이 참가해 '부산 마이스(MICE)산업의 비약적 성장을 위한 일자리 토론'이란 주제로 마이스 분야의 일자리 관련 쟁점 사례를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볼 예정이다.

저변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대학생 모의행사, 컨벤션기획사 교육 등을 진행해 마이스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할 예정이며,

시민 아카데미와 공무원 마이스 교육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마이스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고자 한다.

이 외에도 북도 공간을 활용한 홍보영상 전시, 마이스 콘텐츠 및 해비뉴 공모전 수상작 전시, 기업홍보 부스, 관광기념품 판매 부스, 포토부스 등을 운영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행사 개막식은 오는 11월 30일 오후 2시 벅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마이스 관계자 및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및 우수기업 표창, 감사패 수여, 공모전(콘텐츠, 해비뉴) 당선작 등을 위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마이스산업은 인적 자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미래의 인재 육성과 구성원 간의 상생 협력 체계 구축이 중요한 과제다"라며, "마이스업계뿐만 아니라 관련 대학, 일반시민 등 다양한 주체가 모여 부산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교류·협력의 장이 될 이번 행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김희태/기자



청송군, 위원회 인재풀 제도 도입

군민 참여 확대 비롯해 행정의 투명성 및 민주성 향상 기대

청송군은 군청에서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에 군민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송군 위원회 인재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청송군에서는 99개 위원회에 922여 명이 활동 중이며, 신규위원회의 유입이 적어 중복위원 재위촉 사례가 많은 실정이다.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군민을 대상으로 위원회 인재풀 DB를 구축해, 각종 위원회에 군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군정발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구축된 인력풀 DB는 군청 내 각 부서에서 신규위원 위촉 시 자료를 요청하면 DB자료를 추출하여 제공될 예정이다. 요청 부서에서는 자격확인 등 검증과정을 거쳐 위원으로 위촉하며, 위원 임기가 끝난 이후 평가를 통한 양질의 인재풀이 유지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청송군은 위원회 인재풀 확충을 위해 청송군 홈페이지 및 우편, 팩스로 상시 모집 중이며, 사회 각 분야의 전문경험을 갖추고 군정에 관심이 많은 청송군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인재풀은 인력은행제도가기 때문에 신청과 동시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설치운영 등 규정에 따라 민간 참여가 제한된 위원회에는 위촉되지 않는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위원회 인재풀 운영을 통해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접근성

과 관심 향상으로 군민들의 군정 참여가 확대되고 군정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우리 지역 안전 지킴이" 영양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영양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가 11월 17일 영양군민회관에서 개최됐다. 영양의용소방대 연합회가 주관하고, 영양군과 안동소방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소방공무원, 영양의용소방대원 그리고 관내 기관단체 임직원 등 약 250여 명이 참여했다.

오도창 영양군수, 김석현 영양군의회 의장, 심학수 안동소방서장, 각 시·군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등 각 기관 내·외빈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의용소방대원 상호 간 친목을 도모하는 동시에 소방기술 및 체력증진으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으며 생활안전구조 이어달리기, 수관블링 등 4종목으로 경기를 진행했다.

개회식에서는 임추기 영양군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의 대회사에 이어 오도창 영양군수는 그간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힘써온 의용소방대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하며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뒤이어 각 읍·면 8개 대가 참석한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는 생활안전구조 이어달리기, 수관블링 등 4종목으로 경기를 펼쳤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축사에서 "바쁜 생업에도 화재예방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여 애쓰시는 영양의용소방대원들의 봉사정신에 감사드리며, 오늘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

여 영양군민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서초구, 아·태평양 법조 문화 중심 도약...
학술대회 통해 해법 모색한다!

구,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서 법률전문가,주민 등 150명과 사법정의 허브 조성 학술대회 열어

서초구가 서초동 법조단지를 아·태지역을 대표하는 법조문화 허브로 조성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뚫다. 이듬해 '서초구 사법정의 허브'
서울 서초구는 오는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서초동 법조문화 중심도약을 위한 '2023 사법정의 허브 조성 학술대회'를 연다.

구의 '사법정의 허브' 조성을 위한 심호탄인 이번 학술대회는 사법정의 허브 정체성 확립과 발전방안, 효과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된다. 이날 법조인, 법원·검찰 등 관계부처, 법률학회, 구민 등 150여 명이 참여한다.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진행되는 학술대회는 제2대 국제형사재판소장 및유니세프한국위원회장을 역임한 송상현 교수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한다.

대회가 구의 사법정의허브 조성에 귀한 자료 및 도움이 될 것 기대한다."며, "서초구가 아시아-태평양의 사법정의의 수도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흥수/기자

이번 행사는 '사법정의 허브 조성의 가치와 미래'라는 주제로 서초구와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 주최한다.
구는 '사법정의 허브' 사업추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문가 의견수렴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사법정의 허브'는 반포대로(서초역~누에다리)와 서초대로(서리풀터널~서초역~고대역) 일대의 전국 최대 법조단지를 말한다. 규모는 약 42만m²에 달한다.
이 일대는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고법, 서울고검 등 세계적으로 보기가 드문 법률 공공기관과 대한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다수 변호사사무실 등이 밀집돼 있다. 또, 구가 추진 중인 5가지 테마의 '서초 문화벨트' 중 하나다.
구는 이곳을 아태평양 지역의 사법·정의 메카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한다. 이에 구는 지난 7월부터 '사법정의 허브 조성 학술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국제발전도 헤이그 국제형사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중재재판소 등이 모여 있는 사법 정의의 국제 중심지가 된 것처럼, 서초도 사법 서비스의 대중화와 활발한 국제 교류의 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후 주제 발표는 이종기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가 맡는다. 이 교수는 '사법정의 허브 조성의 가치와 미래'를 주제로 사법정의 허브의 브랜드와 해외 사례 소개, 다양한 법조 문화 거리 조성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대법원 대법관을 역임한 민일영 변호사(좌장)를 비롯해 ▲대구고검장을 역임한 김경수 변호사 ▲김관기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부협회장 ▲신재환 대법원 기획총괄심사관 ▲이수형 법률신문 대표이사 ▲이재승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원장 ▲홍세욱 변호사 등 총 9명의 전문가들이 나서 열띤 토론을 벌인다. 이후 청중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이어진다.
향후 구는 학술대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용역에 반영할 예정이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법정의 허브 확립을 위한 거리 디자인과 브랜드 개발, 특화 공간 조성, 주민 건강프로그램, 법률 문화공연, 국제학술대회 등 다양한 사법문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이다.

2023 사법정의 허브 조성 학술대회
2023. 11. 24(금) 15:00-17:00
서울지방변호사회관 대회의실
'사법정의 허브, 조성의 가치와 미래'

영등포구, 나눔으로 희망의 꽃을 피우다...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선포식 열어

영등포구는 11월 17일, 영등포구청 별관 대강당에서 주민, 사회공헌 기업·단체와 함께 '2024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는 영등포구와 서울시, 서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가 공동 협력으로 진행되는 대표적인 동절기 모금 사업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저소득층 지원 활동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문화가 이어지고 있다.
구는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약 22억 8,342만 원에 이르는 역대 최고 금액을 모금한 결과, 서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우수 자치구 표창 수상의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다.
올해도 구는 주민, 지역 사회와 함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23년 11월 15일부터 2024년 2월 14일까지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캠페인을 펼친다.
구는 전년도 모금 목표액 대비 1억 원을 상향한 20억 원을 목표로 모금 사업을 추진한다. 모금된 성·금품은 저소득 주민이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생활 안정비, 주거 지원비, 의료비 등으로 지원되며,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도 사용될 예정이다.

센터와 복지정책과를 방문해 성·금품을 기탁하거나 영등포구 지정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또한 기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한 모금도 진행된다. 구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리플릿, 포스터 등에 인쇄된 정보무늬(QR코드)를 촬영하면 영등포구 전용 공동 모금회의 기부 페이지로 연결돼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
구는 모금사업 종료 후에는 성과보고 회를 개최해 그간의 모금 실적을 공유하고, 우수 기부자에게 감사패도 수여할 예정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경기 불황, 치솟는 물가 등으로 힘든 시기이지만 함께 마음을 모아 올해도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겨울나기를 걱정하고 있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모금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서울 중구, 사물인터넷에 사람 손길 더해 고독사 막는다

서울 중구가 사물인터넷(IOT) 기기 안부를 확인하는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을 추진해 고독사를 예방한다.
구가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기기는 가전기기의 소비전력량을 추적해 안부를 확인하는 스마트플러그, "도와줘"와 같은 음성을 인식해 위기 상황을 알리는 SOS음성케어 서비스, 갑자기 아플 때 버튼을 눌러 위기 상황을 알리는 SOS음성케어 등 총 3종이다.
기존에 활용하던 사물인터넷 기기의 경우 이미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난 후에 작동하는 방식이어서 예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중구가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SOS음성케어, 응급버튼을 추가해 골든타임 안에 긴급출동이 가능해졌다.
사업 대상자는 올해 실시한 1인 가구 실태조사 결과 고독사 위험이 크다고 나타난 가구 수를 참고해 73가구를 선정했다. 소득수준은 따지지 않는다. 위기 상황 대응이 어려워 사회적 고립 우려가 있는 노인 돌봄 가구, 장애인 돌봄 가구도 대상에 포함된다.
스마트플러그 기기는 대상 가구에 모

두 설치하며 음성케어서비스와 응급버튼의 경우는 돌 중에 대상자가 희망하는 기기를 설치한다.
고립위험으로 안전 확인이 필요한 1인 가구라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독사 위험도가 높은 가구부터 지원하며 기기 소진 시까지 접수해 지원한다.
이 '특별한' 기기들은 각종 위기 징후를 수집해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보낸다. 위험신호가 접수되면 평일에는 관제센터, 야간이나 휴일엔 복지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한다. 연락이 닿지 않으면 동주민센터와 복지재단에서 대상자의 집을 찾아가 본다. 대상자에게 의료지원이나 긴급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응급출동이나 맞춤형 복지서비스 등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연계한다.
기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1천318만원은 전액 서울시에서 받아 진행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인공지능에 사람의 손길이 더해지면 더 세심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며, "돌봐

중구 고독사 위험 1인가구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이란?
신청기간: 2023.11.15 ~ 12.15.(소진시 까지)
신청대상: 고립위험으로 안전확인이 필요한 1인가구
지원내용: 스마트 플러그, SOS 음성케어, 응급 버튼
신청방법: 현장,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 복지정책과 02-3396-5343

영양 들여다보기

ZOOM
들어다볼수록 매력의 아름다움이... 마음을 두곤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영양군 YEONANG-GUN
www.yyq.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꼭오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성동구, 오는 22일 2023 실버뮤지컬 '은빛 하루' 개최

2023성동 실버뮤지컬 은빛 하루
11월 22일(수) 16시30분 / 소월아트홀
당신의 은빛 같은 하루, 그 하루를 멋있게 살아낸 당신으로 인해 내일의 하늘은 금빛으로 빛을 쬐다.
초대가수: 박진도, 민지, MC 도준, 연출 최현숙

가수로 선발된 어르신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가슴속에 담은 끼를 관객 앞에서 마음껏 펼치며 지역주민과 함께 화합하는 무대가 될 예정이다.
공연은 실버세대의 하루를 한 사람의 일생으로 연출, '은빛 하루'로 표현하여 어르신들이 다음 세대에게 '금빛 미래'를 선물하는 세대였다라는 메시지를 담아 갈라뮤지컬 형식의 공연을 진행할 것으로, 출연진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열정 가득한 공연과 초대가수 무대도 준비되어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어르신들의 멋진 도전으로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실버세대의 문화예술 활동이 확대되는 기회이자 전 세대가 노래로 하나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공연이 구민들이 함께 즐기는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될 것 바란다"라고 말했다.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영양의 자연, 일몰산, 선배위와 남이로, 삼의계곡, 수해계곡, 본신계곡, 침복공원, 촉백수림, 외씨버선길
영양의 역사, 음식다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금촌마을, 검산마을, 옥산마을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립비둘기호수공원, 반딧불이전망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산촌생태박물관, 본재수석야생화전시관

강원형 K-연어 산업 민간기업 6,500억 원 투자 선포

연어 20만 톤 생산, 세계 5대 연어 생산국 진입, 고용창출 3만명 달성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전 세계 60조 원에 육박하는 연어시장 선점과 지역경제를 이끌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나가기 위해 2023년 11월 20일 양양 남대천 수변공원에서 "강원형 K-연어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이양수 국회의원,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김재철 (주)동원그룹 명예회장, 김진하 양양군수 등 총 300여 명이 참석

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강원 연어산업 경과보고를 통해 "대규모 연어 스마트양식 생산과 연계한 유통가공, 부산물, 신소재 등의 전방산업과 사료, 질병백신, 시스템 등 후방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의 중추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김남정 (주)동원그룹 부회장은 육상 연어양식단지 투자보고를 통해 "미래의 식량산업의 해답을 연어 양식에서 찾고, 100% 수입에 의존하는 국내 연어 시장의 30%를 국산화하기 위해 6,5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최첨단 바이오 기술과 AI 기술 집적시켜 대한민국 육상 양식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말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가 동북아 연어 클러스터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강원특별자치도가 선포한 비전은 "K-연어 산업화를 통한 글로벌 도시로 도약"으로 2040년까지 3단계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1단계는 2030년까지 연어 스마트양식 생산체계 구축 및 기술력 강화로 스마트양식 테스트베드, 양식산업 단지, 질병예방 연구센터, 수산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2단계로 2035년까지 연어 전-후방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단지 클러스터를 확장 조성한 후, 2040년까지 3단계로 연어 브랜드 개발 및 글로벌 홍보를 강화하여 연어 수출 활성화 및 세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 지사는 "2040년까지 연어생산량 20만톤, 세계 5대 연어 생산국 진입, 일자리 창출 3만 명을 목표로 강원특별자치도가 K-연어 산업화를 통해 기업이 들어오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미래 먹거리 산업, 글로벌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이순신 순국제전 결과물, 기록 남겨야"

박경귀 아산시장은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주간 간부회의에서 주말(17~19일) 동안 개최된 이순신 순국제전과 관련 "복원한 문화예술 공연을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박 시장은 "이번 순국제전을 치르면서, 지난 1년 반 동안의 축제를 돌아보니 아산시의 창조적인 문화예술 분야 기획·집행 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 같다. 주무 부서를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운을 뗐다. "각 분야 최고 전문가의 식견을 행정에 녹인 노력이 탁월했다고 본다. 앞으로 농정, 건설교통 등 시정 모든 분야에도 전문가의 역량을 행정 시스템에 창조적으로 응용해야 한다"고도 했다.

계속해서 박 시장은 순국제전에 대해 "409년 전 '이순신 장군의 예상이 있었다'는 한 줄 기록에서 시작해 전문가 자문과 고증을 거쳐 17세기 예상을 복원했다"면서 "왕실의 중요제례악을 응용해 '충무공 현충 제례악'을 창조했고, 명맥이 끊겼던 '판소리 이순신가'를 재탄생시켰다. 이는 그동안의 축제와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자평했다.

그는 특히 "순국제전의 준비 과정과 복원한 결과물을 잘 정리해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며 순국제전에서 공연한 '현충 제례악'과 '판소리 이순신가'의 악보를 편찬하고, 중요제례악보전회 및 이봉근 명창과 공동으로 음반을 제작할 것을 주문했다. 박 시장은 "개인적으로 당시 정치적 상황과 갈등 때문에 이순신 장군에 장 관련 자료가 전무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산시가 복원한 예상을 후세에 기록으로 남겨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내년에는 성운 이순신 판소리로 경연대회도 개최하려 한다"고 부연했다.

이날 또 박 시장은 아산항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 중간보고회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충남도가 처음엔 아산항 구상에 미온적이었지만, 김태홍 지사의 '베이벨리 메가시티' 공약과 접목해 핵심사업으로 인식하게 됐다. 박 시장은 "이번 보고회에 도청 관계자도 참석하도록 하고, 경제성 외 '정책적인 당위성'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당진 평택항의 포화, 베이벨리 메가시티 완성 및 충남의 거점형 자유경제구역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논리로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박 시장은 △배방 구렁지구 도시계획 조속 추진 방안 모색 △농산물 소득조사 표본설정 내실화 △지중해 마을 완충녹지 조성 시 주민 의견 반영 등도 지시했다. 김원호/기자



충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개편 방안 논의

도, 20일 '2023년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워크숍' 개최



충남도는 20일 신라스테이 천안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내년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개편을 위한 논의를 위해 '2023년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영신 지속가능발전공동위원장 등 제3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도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워크숍은 추진 현황 공유, 발전,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에선 김병완 광주대 교수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개편 방안과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 및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개편 절차와 방법을 설명했으며, 타 시도의 전략 수립 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기본전략 개편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으며, 앞으로 추진할 과제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고 내년 위원회의 방향성을 학습했다. 이영신 공동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라며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위원회가 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위원회와 함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개편을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충북도, 제84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거행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 기억하며, 새로운 미래 다짐



제84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이 광복회 충청북도지부(지부장 장기영) 주관으로 17일 삼일공원에서 거행됐다. 순국선열의 날을 맞아 광복회 충북지부에서 주관한 이번 기념식에는 순국선열의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후세에 전하고, 선열들의 얼과 위훈을 기리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 등 주요 기관장과 보훈단체장, 광복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이번 기념식은 약사보고, 헌화와 분향, 정부포상 전수, 추모사, 추모헌시 낭송에 이어 순국선열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영환 지사는 헌화·분향을 통해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선열의 영전에 명복을 빌고, 나라사랑 정신의 숭고한 의미를 되새겼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은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신 선열들의 희생 덕분에 이어가 충북이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유족 여러분들이 그 명예와 자부심을 잃지 않고 당당하고 존경받으며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예우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정화/기자

민선8기 원주시 2,119억 원 투자 유치·598명 고용 확대 성과

적극적 기업유치 노력으로 반도체, 2차 전지 등 11개 우량기업과 MOU 체결



민선8기 들어 경제중심도시를 선언했던 원주시가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원주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총 2,119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598명의 고용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원주시에서 지난 15개월 동안 투자유치한 기업은 총 11개 기업으로 ▲반도체(인테그리스코리아(주), (주)지큐엘), ▲2차 전지(주)나노인텍) ▲디지털헬스케어(주)오톨, (주)현대메디텍), ▲이모빌리티(주)세원) ▲식가공품(주)프्रेस이원, (주)서울에프엔비, (주)데어리젠) ▲기타(주)마이셀, (주)리뉴시스템) 분야 등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는 내실 있는 기업들이다.

또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 성과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와 상시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신규 산업 육성을 위해 첨단바이오 국방산업 분야의 유치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가져올 기회발전특구 유치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우등기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주시 자치분권·지역균형발전 포럼을 개최하는 등 원주시 경제부흥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시장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추진했던 민선8기 원주시의 노력이 점차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며 "시민이 직접 체감할 만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우수 기업 유치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환/기자

태백시, 사계절 다목적 전지훈련 특화시설 '에어돔' 조성 본격 추진

태백시는 전국 유일의 스포츠 특구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계절, 날씨에 상관없이 경기 운영이 가능한 사계절 다목적 전지훈련 특화시설인 '에어돔 구장'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에어돔 구장'은 총 사업비 125억 원을 들여 추진 중으로 사전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설계 공모중이며, 오는 2024년 6월 실시설계 완료 후 7월 본격 착공하여 11월 완공할 계획이다. 고원4구장 일원에 건립될 '에어돔 구장'은 건축규모 1만 4,600㎡ 축구장 1면과 연습용 트랙, 체력단련실, 전술회의실, 라커룸, 샤워실, 휴게시설 등이 들어선다. 시는 내년 11월 사계절 다목적 전지

훈련 특화시설인 '에어돔 구장'이 완공되어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하면 태백시 스포츠산업도시 육성을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문화이벤트, 재난대피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전지훈련 메카 태백시의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해 사계절 내내 이용이 가능한 다목적 에어돔 구장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라며, "기상 여건에 구애받지 않는 다목적 에어돔구장 조성으로 연중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가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상근/기자



이를 위해 15년 넘게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부원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전격 재가하는 한편 반도체대전, 인베스트코

서울디지털재단, 런던 진출 희망하는 '스마트도시 솔루션 해외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선정기업 ▲실증 수요처 매칭 ▲사업비 ▲업무공간 ▲현지 사업화 지원 혜택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 스마트도시 솔루션 해외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우수 스마트도시 분야 솔루션 보유기업 12월 8일까지 모집한다.

본 사업은 재단이 운영하는 글로벌 도시 간 스마트도시 솔루션 교차실증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의 기업이 영국 런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지난 7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조성된 SCEWC 2023 서울관에서 영국 런던의 템즈 프리포트, 카타펠트, 바킹대그넘 자치구와 4자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재단은 런던 참여기관과 공동 연구를 통해 서울-런던 스마트도시 솔루션 교차실증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로드맵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재단 누리집 '지식정보' 연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런던 현지의 수요분야인 스마트홈, 에너지 절감 관련한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이며, 총 5개사 내외로 선정할 예정이다.

런던 현지 수요분야에 적합하고 즉시 실증이 가능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영국 현지에서 1개월 이상 현지 체류가 가능한 서울 소재기업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업은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합격 기업에 한해 런던 현지 참여 기관 인터뷰를 추진 후, 최종 선정돼 관련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최종 선정 기업은 ▲런던 현지 체류 및 실증, 현지 사업화를 위한 사업비(기업당 3천만~5천만원) 지원, ▲현지 솔루션 수요처 매칭 및 실증, ▲바킹대그넘 관내 업무공간(런던이스트) 제공, ▲현지시장 진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디지털 재단 누리집 '소통마당'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서류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재단은 작년 몬트리올의 기관 메드텍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교차실증 사업을 시범운영한 바 있다.

서울 기업 아이메디신의 디지털멘탈케어 자동뇌파분석 솔루션이 몬트리올 현지에서 실증 및 공동연구를 수행했으며, 몬트리올의 기업 아이시스트(I-Syst)가 서울에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10일 아랍에미리트의 사르자디지탈청(청장 셰이크 사우드 알카시미)과 MoU를 체결하는 등 런던 뿐만 아니라 교차실증 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바킹대그넘 대런 로드웰(Darren Rodwell) 구청장은 "서울은 이미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며 "서울의 우수 솔루션이 베콘트리(바킹대그넘 자치구)를 실증 테스트베드 지구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바킹대그넘이 향후 계획하고 있는 신규 산업 및 주

거단지에도 조달되는 등 실질적인 현지 시장 진출할 기회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강요식 이사장은 "바킹대그넘 자치구는 약 100년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했으며 노후화된 주택의 개조로 인해 스마트홈이나 에너지 절감 관련 솔루션 도입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라며 "서울의 우수 솔루션이 수요지역 실증을 통해 런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말했다.

추가로, "글로벌 도시 간 스마트도시 솔루션 교차실증 사업은 단순 일회성에 그치는 해외 실증 지원이 아니라 양 도시 간 교류를 통해 현지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크다"며 "1년 넘게 사업을 준비한 만큼 서울의 우수 솔루션이 런던, 샤르자 등에 실질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 전했다.

최광수/기자

스마트도시 솔루션 해외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모집기간 : 2023.11.20 ~ 12.8

사업개요

- 사업명 : 서울 스마트도시 솔루션 해외(런던) 실증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서울 소재기업 총 5개사 내외
- 수요처 : 런던 바킹대그넘 자치구 베콘트리(Becontree)
- 지원내용

현지 실증, 사업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현지 솔루션 수요처 매칭 및 실증 지원	현지 업무공간 제공	현지 사업화, 시장진출 지원
-----------------------	-----------------------	------------	-----------------

※ 사정에 따라 지원내용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3.11.20.(월) ~ 12.8.(금) 16:00까지
- 모집대상 : 런던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아래 모두 해당되어야 함)

✓런던 현지 수요분야에 적합하고 즉시 실증이 가능한 솔루션 보유 기업	✓영문 발표 Deck 보유하였으며, 최소 1개월 이상 현지 체류 가능한 기업	✓서울 소재기업
--	--	----------

※ 서울에 자사, 연구소 등 서류 증명 가능 시설이 가능

- 모집분야 : 스마트홈(HW, SW, IoT 등), 에너지 절감 관련 분야
- ※ 세부내용 공고문 및 붙임4 참조

선정절차

기업 모집	서류평가	발표평가 (2배수)	최종평가 (현지 인터뷰)	최종 선정 및 협약
~12.8	~12.11	12.12	~12.22	12.27

※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문의처 : econjkim@sdf.seoul.kr | 02-570-4654

강릉시, 2023년 직업소개소 대표자 및 종사자 교육 실시

직업소개 및 상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직업윤리 향상 도모

강릉시는 직업소개 및 상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직업윤리의식 향상을 위해 20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3년 직업소개소 대표자 및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국고용서비스협회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구직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 준수사항과 직업소개제도,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의 건전화와 종사자의 전문지식, 직업윤리 의식에 대해 생생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한 강의가 3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교육을 통해 직업소개소의 육성지원 및 선진화를 도모하고 건전한 노동시장을 조성하여 직업소개사업 질서가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관내 직업소개소는 유료 69개소와 무료 5개소 등 74개소가 운영 중이며, 시는 향후 종사자 교육과 정기점검을 통해 건전한 노동시장을 확립하고 안정적인 직업소개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박상우 경제진흥과장은 "직업소개소는 일자리가 필요한 구직자와 구인 업체에 도움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직업소개소 대표자 및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2023 하반기 수확 '진주 금실 딸기' 수출 시작

상반기 3859만 달러 실적...동남아 5개국 1.6t으로 하반기 수출도 스타트



진주시는 지난 14일 2023년 하반기 작기에 수확한 진주 금실 딸기 1.6t을 홍콩, 싱가포르 등 동남아 5개국으로 수출함으로써 하반기 딸기 수출을 시작했다.

딸기는 해마다 3000t 이상 수출 실적을 기록하면서 농산물 전체 수출액 중 80% 차지하는 진주시를 대표하는 신선 농산물이다. 지난해 전국 딸기 수출량을 보면 경남지역 수출 점유율이 94%이며, 이중 진주시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에 수출한 딸기는 진주시 수곡농협수출농단과 수곡알찬수출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한 '금실'품종으로, 경남농업기술원이 2016년 개발했으며 당도가 높고 단단하여 수출에 특화된 품종이다.

최근 농업인력과 경제면적이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진주시의 신선 농산물 수출 실적은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수출농업 육성을 통한 내수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진주시와 농협, 농가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실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딸기 수출액은 6월말 기준 3859만 달러로, 전년 대비 30% 이상 상승했고 하반기 새 작기의 첫 수출을 시작으로 내년에도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자들과 함께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모색·추진해 수출농가에 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상주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For more success with **SANGJU**

더 큰 성공을 위한 선택

울진군, 수능 후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및 캠페인 실시

국내외 (공공)기관과 교육관계자, 수학여행·영재교육원 방문 잇달아

울진군은 지난 16일 수능을 맞아 울진읍 학교 주변 및 변화가를 중심으로 울진경찰서, 울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점검은 수능 후 긴장감에서 해소된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업소와 수능 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학교 주변 일대의 청소년들의 출입이 잦은 편의점과 일반음식점, 만화카페, 노래연습장을 방문하여 술 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 부착 여부, 술·담배 판매 시 신분증 확인 및 청소년 출입 시간제한 확인 등 청소년 보호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군은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매분기 1회 이상 유관기관과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수능 후 해방감으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인 만큼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보호 활동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구미시, 수능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지도·점검 실시

12월 8일까지 학교 주변, 변화가 등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에 나서

구미시는 16일 수능당일 원평동 일대 청소년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물질(술·담배 등) 판매 금지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경찰서, YMCA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20여 명이 합동으로 3개팀을 구성해 구미역과 문화로 일대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에 위치한 편의점, 노래방, 유흥업소, 술집, 음식점 등을 방문했으며, 청소년 보호법 관련 위법행위 발생여부를 점검하고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특히, 수능 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이 변화가에서 유해업소 출입과 음주·흡연, 이성혼숙 등 일탈행위를 벌이는 것에 대한 예방활동을 벌여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보호에 나섰다.

시는 읍면동 소속 청소년 지도위원을 중심으로 12월 8일까지 학교주변, 변화가 등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연말에도 청소년 건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동현/기자



순천만 용산 주 전망대 긴급폐쇄 결정, 보조 전망대 구간까지 운영

정밀안전점검서 D등급,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선제 조치



순천시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순천만 용산전망대를 11월 21일부터 긴급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순천만 용산전망대는 2010년 지상

2층 목구조형식으로 설치되어 우리나라 최대 갈대군락지인 순천만습지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랜드마크다.

시는 안전한 시설물 사용을 위해 지

속적인 관리를 실시했으나, 구조물 이상을 감지하여 긴급히 안전진단 전문가에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한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에 시는 전반적인 시설물 부식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어 관람객의 안전을 위한 선제 조치로 긴급 폐쇄를 결정했고, 경제성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전면 철거 후 재건축할 계획이다.

다만 용산전망대를 대신해 용산전망대의 450m 후방에 위치한 보조전망대까지는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 경관을 정비하여 보조전망대에서도 순천만의 낙조와 습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순천만의 랜드마크인 용산전망대가 긴급 폐쇄되어 안타깝지만, 시민과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책인 만큼 이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승준/기자

통영시 11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전개

일상속 안전실천 캠페인(지키자! 확인하자! 배우자!) 홍보

통영시는 11월 보행자의 날(11. 11)과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보행안전, 화재·자연재난 대응 행동요령, 응급조치·대피 등 일상생활 속 안전실천 홍보 등을 위해 지난 17일 죽림 내측도 수변공원 일대에서 안전문화 캠페인과 안전 한 바퀴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안전보안관, 안전모니터봉사단, 한국해양구조협회 경남서부지부, 통영시여성민방위기동대, 의용소방대, 심폐소생술봉사대 등 우리 시 안전단체 7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하세요? 홍보 등을 비롯해 ▲위험요소 발견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불조심강조, 화재예방 및 산불조심 홍보 ▲겨울철 자연재난(대설) 대비 풍수해보험 홍보 ▲보행자의 날 기념 보행안전 캠페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시민홍보 등을 실시했으며, 홍보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각종 팸플릿, 물티슈 등 홍보물품을 배부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안전사고는 언제 어

디서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키고, 확인하고, 배우는 안전실천을 몸에 익힐 필요가 있다"며 "특히 11월부터는 대기가 건조해지면 산 불이나 화재발생 위험이 높으므로 산림주변 인화물질 절대반입금지, 쓰레기 소각금지 등 산불예방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이유준/기자




의 성 군



항공물류중심 공항도시 의성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어르신은 왜 접종이 필요한가요?

- ✓ 변이바이러스에 의해 코로나19 감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새로운 바이러스에 다시 감염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 65세 이상 어르신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 65세 이상은 65세 미만에 비해 치명률이 약 40배 높습니다.

- 2022년 사망원인 3위는 코로나19로 65세 이상 어르신이 91.9%로 나타났습니다.
* 통계청,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2023.9.21.)

- WHO, 미, 영, 일, 호주 등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의 예방접종을 권장합니다.
- ✓ 이번 신규 백신은 현재 발생하는 변이바이러스에 대한 맞춤형 백신입니다.**

- 기존 백신에 비해 현재 발생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최대 4배 효과가 높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면 입원·사망 위험을 약 1/20로 줄일 수 있습니다.

'23-' 24절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은?

- 접종백신** 현재 변이에 맞춘 신규백신(XBB기반)
- 권고대상**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및 종사자
| **접종대상** | 12세 이상(이전 접종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접종가능)
- 접종일정** 2023.10.19.(목)~2024.3.31.(일)

접종 일정	접종 대상
2023.10.19.(목)~2024.3.31.(일)	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 및 종사자
2023.11.1.(수)~2024.3.31.(일)	그 외 12-64세

-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병 의원) 및 보건소

- 사전 예약 없이도 **당일**에 바로 **접종**이 가능합니다.

- 사전예약도 가능합니다: 1339 전화예약 및 누리집(<https://ncvr.kdca.go.kr>) 접속 (대리 예약 가능)



잠깐,
코로나19 백신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같이 맞아도 될까요?

- ▶ 가능하다면 두 백신을 같은 날 동시에 맞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 ▶ 지난 동절기 65세 이상 어르신 중 같이 맞은 분들의 이상사례 신고율은 코로나19만 맞은 분들에 비해 접종부위 통증 등이 약 40% 낮았습니다.



질병관리청



경상북도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